

≡ 질문 가이드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늘 불편하다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해요. 용서하기 힘들어도 용서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 사울의 생명과 자기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 앞에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5. 감사

오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을 적어 보세요.

6. 기도

모든 관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을 계속 품지 않게 도와주세요. 죄인인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그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7. 가족 미션

<꽃 심기>

5월이나 6월쯤에 예쁘게 꽃을 피우는 식물을 찾아서 화분에 심어 보세요.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매일 좋은 말을 해 주면 서 내 마음도 예쁘게 가꾸어 보세요.

* 주일예배 준비하기

가정예배를 마친 후에는 함께 주일예배를 준비합니다.

1. 부모는 자녀에게 주일의 중요성과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2. 마음으로 주일예배를 준비합니다.
3.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주일에는 가급적 다른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4. 단정한 옷을 준비합니다.
5.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주일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본문 말씀: 사무엘상 26장 24~25절 (3월 22일 본문)

▪ 포인트: 원수인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맡긴 다윗은 사울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1. 찬양

(새 434)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2. 기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가 새 힘을 얻게 도와주세요.

3. 말씀

사무엘상 26장 24~25절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새번역 성경>

24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 내어 주실 것입니다.” 25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 본문 이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았어요. 자기 원수인데도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기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길 소망했어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된 사울은 그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십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있는 곳을 들은 사울은 다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십 광야로 갔어요. 사울은 지난번 다윗이 엔게디의 동굴에서 목숨을 살려 주었을 때 다윗의 진심에 감동했지만(24장), 여전히 다윗을 미워해 죽이려고 쫓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밤에 사울의 군대가 있는 곳에 몰래 갔다가 사울이 머리맡에 창을 땅에 꽂아 둔 채 누워 자고 다른 군사들도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의 군사령관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에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를 치시든지, 아니면 때가 되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지요(26:10~12). 몰래 창과 물통을 들고나온 다윗은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리치며 사울과 부하들을 깨웠고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말했어요. 다윗의 손에 자신의 창이 들려 있는 것을 본 사울은 잠든 자신을 단번에 찔러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다윗의 행동에 감동해 용서를 구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요(26:21). 다윗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또한 자기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다윗의 이런 고백을 들은 사울은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고 축복하며 다윗 쫓기를 멈추었어요(25절). 다윗은 자신의 원수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맡겼고, 사울은 이런 다윗의 행동을 통해 그의 진심을 알고는 결국 다윗을 축복했지요.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 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삼상 26:10~12).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삼상 26:21).

Tip. 사울은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두 번이나 살려 주었지만, 사울의 마음이 언제 또 바뀔지 몰라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에서 가서 살았어요. 블레셋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블레셋 군대의 사령관들이 반대해 다윗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을 돕지 못했어요(삼상 29장). 다행히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했고, 그 싸움에서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리고 심한 상처를 입은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삼상 31장).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 사울을 대적해 싸우는 전투에 다윗이 참여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4. 나눔

1)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2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듯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24절을 낭독해 보세요.

- 저학년
다윗은 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목숨을 소중히 여겼을까요?(23~24절)
- 유아·유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어떻게 대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24절)

≡ 질문 가이드

셋째 주 가정예배 본문(24:4~7)도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이야기예요. 셋째 주 본문이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한 다윗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주 본문은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26:23)께 말기는 다윗의 행동에 초점을 두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말기는 다윗을 상상하며 24절을 읽어 보세요. 결국 다윗의 진심이 담긴 행동으로 인해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게 되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겹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겹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삼상 24:4~7).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같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 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시다”(삼상 26:23).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이후 수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와 동굴로 피해 다니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였지만,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고 고백해요. 사울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본문 이해 참고, 26:10) 다윗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면, 결코 사울의 목숨을 두 번이나 살려 주지 못했을 거예요.

2)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를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은혜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 저학년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에 대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용서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 유아 유치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